

ハ誠に愉快のことヂヤ’(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오늘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다니 참 유쾌한 일이다, 下p.10)라고 満足感を 느낀다.

이것에 비해서 리태순은 정반대이다. 북한사에서 장매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하늘과 싸를 모른다흐얏스니 일덩 부모가 업는녀자이오 빅년의탁이 아득하다흐얏스니 아즉덩혼치아니혼듯흐나 다만 셋지귀에 이른바 사롭은갓고 성이 다르다흐은 누구를가라침인지 알길이업도다’ (p.37)라는 것인데 이것도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달이 나서 ‘밤이 맛도록 전전불미’(p.37)한다. 그리고 리태순도 금년에게서 ‘먼저번에서방님께 식비보니시던 일흠업는편지도 어더셔온것인지 몰났더니 이동안아라본즉 그 아씨게서 유지흐신량반의 곤난격그심을 의석히 녀여 보니신것이라 흐더이다’(p.71)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장매선이 恩人임을 알게 되는데, 満足感を 느끼기는커녕 ‘가히 아름다운 녀자라흐겟스나 그러나 괴이흐소문이 신문상에 올라 세상에랑자흐은 엇진연고인지 모로리로다’(p.71)라고 나쁜 면으로 눈을 돌린다.

國野基는 福住樓(후쿠수미로우)의 宿泊簿에서 春(하루)의 이름을 스스로 찾는데에 비해 리태순은 초막에서 글을 읽고 있었던 여자(장매선)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주승이 宿泊簿에서 찾아 주는 것을 기다렸다. 國野基는 숙박부를 다 본 뒤에 ‘些ト心に掛る事があつたが氏が藤井で長野縣なら矢張り別人だ’(약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성이 후지이이고 나가노縣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다, 下 p.16)라는 혼잣말을 한다. 이로써 國野基는 찾는 사람이 있어서 宿泊簿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春(하루)가 자신이 찾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國野基는 春의 住所를 수첩에 베긴다. 이것은 春가 자신의 恩人임을 알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다. 한편 리태순은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 속에서 ‘경성에잇는 녀자 일시분명흐나 그러나 그 글익는 소리를드러본즉 전라도 음성 갓든디’(p.40)라고 생각한 것도 출생지에 대한 예상이 빗나갔다는 의미밖에는 가지지 않는다. 리태순은 초막에서 글을 읽고 있었던 여자를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住所도 베끼지 않았다.

國野基가 春를 따라서 木賀(키가)로 떠난 것은 春에게서 받은 편지에 시간이 있으면 木賀까지 와 달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病氣も全快した’(병도 완전히 나왔다, 下p.17)라는 상태로 ‘一里半餘り’(10리 반 남짓 = 6km)의 거리를 걸어가고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한편 리태순은 자신과 관계 없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장매선을 따라서 문산포로 떠난다. 주승이 ‘남의택 부인의 거취는무삼연고로 물으시나닛가’(p.40)라고 의아해하는 것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병이 조금 나으미’(p.40) 정도의 상태인 것도 무릅쓰고 ‘칠십리’(=28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려고 무리를 한다. 북한사에서 리태순과 장매선은 오직 목소리를 통해서 詩를 주고 받고 한 것뿐이므로, 그 후에 리태순이 장매선을 쫓아가도록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國野基도 리태순도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데 그 반응은 정반대이다. 國野基는 ‘谷川の水聲も何となく寂寞として旅窓の幽鬱を増し’(계곡의 물소리도 어쩐지 쓸쓸해서 여행의 우울함을 더하게 하고, 下p.17)처럼 물소리를 조용한 것으로서 듣고 있는 데에 비해 리태순은 ‘귀에익지못한 폭포소리는 실로 태순의 심사를산란케하며’(p.40)처럼 물소리를 시끄러운 것으로 듣고 있다. 이것은 感受性의 차이라고 하겠다.

國野基와 리태순은 당대의 풍속을 비판하는 태도도 다르다. 國野基는 ‘今日我邦にて父子の關係ハ全く支那の道德に支配せられ (中略) 我我ハ此の弊習を一掃する様に盡力せねばならぬ’(오늘날 일본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중국의 도덕에 얽매여 있어서 (中略) 우리는 이 폐습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된다, 上p.65)라고 중국 풍습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여기에는 末廣鐵腸(수에히로 텃초우)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日本에서 ‘明治十年(1877년) 이후에 서양학문이 만능하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漢學이나 舊文學이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되었을 때에 末廣鐵腸는 이런 風潮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서양학문을 배우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라고 경고를 發했다⁵¹⁾고 한다.

한편 리태순은 ‘서양풍속이라고 엇지 다 아람다오며 우리나라풍속이기로 다 악호리오 맞당히 그 긴것은취호고 절은것은벌릴지라’(p.18)라고 한국 풍습과 서양 풍습을 둘 다 존중하고 있다. 리태순의 생각은 原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朝陽報」에 실린 다음의 글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開化호는 事가 他人의 長技을 取호는 事 아니라, 自己의 善美호는 者를 保守호기에도 在호니, 大概 他人의 長技를 取호는 意向도 自己의 善美호는 者를 補호기 爲호인 故로, 他人의 才操를 取호야도 實狀잇게 用호는 時는 則自己의 才操라⁵²⁾

51> 柳田泉, 「明治初期の文學思想」 上卷 (東京, 春秋社, 1965), p.375

52> 「朝陽報」 2호 p.4, 1906년 7월 10일자 논설 ‘開化原委’에서 引用했다.

아무것에나 盲從하는 無條件的인 開化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自身에게 中心을 두는 開化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리태순의 말과 일치한다.

國野基는 방 속에서 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감옥의 꿈을 꾸었을 때에도 ‘谷川の水聲ハ滔滔として枕に響けり「ハテ今のハ獄内に居つた時の夢であつたか’ (계곡의 물소리는 도도히 베개에 울렸다 「글쎄 지금 본 것은 감옥 속에 있었을 때의 꿈이었구나, 上p.116)에서 베개를 베서 누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富永春가 國野基의 방에 찾아왔을 때에도 ‘階子段の上り口より下女の聲にて國野さんお嬢さが入らつしやいましたト云ふを聞き國野ハ枕を隅の方へ突き寄せて出迎へバ’(계단 밑에서 하녀가 ‘쿠니노 선생님, 아가씨가 왔는데요’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쿠니노는 베개를 방 구석에 밀어치고 마중하러 나갔는데, 下p.142)처럼 國野基는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箱根湯本(하코네유모또)의 福住樓(후쿠수미로우)에서 武田猛를 만난 직후에도 國野基는 ‘浴衣の儘にて坐蒲團の上に寢轉び一人の書生が「武田君善い風が來るナア’(무명 홉옷을 입은 채 방석을 머리에 베고 누운 한 서생이 「타케다君 바람이 아주 시원하네, 下p.28)와 같이 누워 있다. 한편 리태순은 북한사에서 전전불매하는 장면 이외에는 눕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방에서 눕는다는 國野基의 행동은 무엇이든지 천천히 이루려고 하는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一斷面이기도 하다.

國野基는 俗物根性도 가지고 있다. 箱根湯本(하코네유모또)의 福住樓(후쿠수미로우)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오자 下女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別嬪か子’(얼굴이 예쁘냐?, 上p.120), ‘同伴ハどんな人だ御亭主か子’(같이 온 사람은 누구야? 남편이야?, 上p.120)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여자가 품위 있고 온화스럽고 結婚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下女에게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一夕の閑話を爲して旅窓の鬱を慰めん’(한가한 저녁인데 잠깐 이야기나 나누어서 여행의 우울함을 달래야지, 上p.123)라고 생각하며 심심풀이로 부른 것이다. 또한 原作에는 國野基가 술에 만취했을 때의 言動도 나타난다. 富永春가 쓴 편지를 받자 그것을 입 속으로 집어넣고 씹기 시작하고, ‘狸やら狐やら分らぬものに返事ハ致さぬ’(너구리인지 여우인지 모르는 자에게는 답장은 안 준다, 下p.132)라고 富永春를 罵倒하고, ‘彼の梅吉と云ふ女を呼んでお呉れ’(그 우메키치라는 아가씨를 좀 불러 줘요, 下p.132)라고 기생을 부른다. 國野基는 富永春의 편지를 읽지 않은 채 버렸을 뿐만 아니라 罵倒한 말을 下女가 富永春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튿날에 富永春에게 편지의 답장을 쓰는 것을 꺼리게 된다. 한편 翻案作에서 리태

순은 집에 돌아가서 술에서 깬 뒤에 장매선의 편지를 받아서 제대로 읽었고, 罵倒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매선에게 답장을 써서 보낼 수 있었다. 翻案作에는 리태순의 俗物根性도 술에 만취했을 때의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연극개량에 대해서 國野基도 리태순도 自國의 연극을 외국인에게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國野基가 연극을 개량함으로써 ‘外國人に日本の演劇は妙ちやと云つて感心させること(외국인들에게 일본의 연극은 재미있다고 감심시키는 것, 下p.74)’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에 비해 리태순은 연극을 개량함으로써 ‘외국사람에게도 조소를면호’(p.50)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를 보태려는 國野基의 자세와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리태순의 자세가 대조적이다.

리태순은 연극개량을 論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유희호는 규모는 모다 이십년전구풍으로 압제덩치만 알던시더의 스상을 숭상호야 리도령이니 춘양이니 호는잡설과 어스니 부스니 호는괴구를 주장호며 꼭두니 무동이니 의미업는 유희로 다만 부랑랑즈의 도회장이 되야 문명풍화에는 조금도 유익홀바가업스니 (p.49~p.50)

이와 같은 古典의 否定은 翻案作 <雪中梅>의 校閱者인 李海朝가 쓴 <自由鍾>에도 나타난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을보면 덩치를 알겠소 심청전을보고 법률을알겠소 홍길동전을보아도덕을알겠소 말홀진디 춘향전은 음탕교과셔오 심청전은 처량교과셔오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셔라 홀 것이니 국민을 음탕교과로 가르치면 엇지풍속이 아름다오며 처량교과로 가르치면 엇지 장진지망이 잇스며 허황교과로 가르치면 엇지정대흔괴상이 잇스릿가 우리나라 란봉남즈와 음탕흔녀즈의 제반악징이 다이에셔나니 그영향이 엇더호오⁵³⁾

이러한 지적은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다시 널리 읽히고 있던 고대소설들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어떤 요소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⁵⁴⁾

53> 李海朝, 「조유종」(廣學書舖, 1910), p.10~p.11

54> 權寧珉, ‘개화 계몽 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韓國文化> 17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6. 6.), p.83

인데, 出版年代는 翻案作 <雪中梅>가 1908년이고 <自由鍾>이 1910년이기 때문에 <雪中梅>에 먼저 나온 것이다. 한편 原作에는 고대문학을 否定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富永春(토미나가 하루)는 장매선에 해당된다.

둘 다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 富永春의 말투는 ‘音聲にハ何處か西國訛りがある様だ’(말투를 들으니까 서쪽 지방의 억양인 것 같다, 下p.16)라고 묘사되어 있고, 장매선의 말투는 ‘소리들드러본즉 전라도 음성 굿든디’(p.40)라고 묘사되어 있다.

富永春의 醜聞이 신문에 나타날 때에 그 이름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紫の花に縁ある家の内にて夏とか冬とか云ふ様なる名前の女’(보라색 꽃에 관계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하는 이름의 여자, 下p.123)라고 소개되었다. 藤꽃이 보라색이므로 ‘紫の花に縁ある家’(보라색 꽃에 관계가 있는 집안)은 藤井(후지이)氏의 집안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春은 四季節 중의 하나이므로 ‘夏とか冬とか云ふ様なる名前’(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하는 이름)은 春(하루 = 봄)이라는 이름을 암시하고 있다. 國野基는 富永春의 방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사진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お春さん夫れでハ貴女の御姓ハ藤井でなく富永で’(하루씨, 그러면 성은 후지이가 아니라 토미나가이고, 下p.163)라고 春(하루)의 성이 富永(토미나가)임을 알게 된다.

한편 리태순도 북한사의 宿泊臺帳에 ‘권첩스 부인 년이 오십일세오 소저미션 년이 십팔세라 흐얏는지라’(p.40) 장매선의 본명이 ‘권매선’인 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장매선의 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뒤에 ‘태순이 이윽히 생각해다가 갈으더 그러호오면 존성이 장씨가 아니시오닛가 미션이 더답호되 그러하니이다’(p.76)라는 對話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선의 성이 ‘권’이 아니라 ‘장’임을 알게 된다. 신문에 醜聞이 실릴 때에는 ‘권’이라는 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매선’이라는 이름을 암시하는 표현만이 ‘미화라호던지 미향이라호던지 호는녀즈’(p.66)라는 형태로 나왔다.

醜聞의 記事는 신문기자의 소감으로 마무리 지어져 있는데 原作과 翻案作의 그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何ぼ別嬪で書物が讀めても此の御品行でハ花咲く春に「ハハア春の字に○點が付て居ゑ逢ふ事ハ出來ますまい(下p.124)

(아무리 미인이고 서적을 많이 읽었어도 품행이 이와 같으면 꽃 피는 봄을 「하하아 봄 ‘춘’자에 둥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맞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모리인물이 절식이오 학문이 고명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형실이 잇슬진디
그일홈을 미션이라홈이 붓그럽도다 미화라호는것은 절기가놉흔꽃이니 엇
지음형이 더러흔녀자의 비홀바리오 이는 진실로미화를 욱되게홈이로다
(p.67)

우선 눈에 띄는 것은 記事의 앞부분에서 ‘夏とか冬とか云ふ様なる名前’(여름
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하는 이름, 下p.123)라든가 ‘미화라호던지 미향이라호던
지 호는녀즈’(p.66)라고 애매하게 소개된 이름이 각각 ‘春(하루)’와 ‘미션’으로 특
정된 점이다. 위의 두 가지 글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모나 학문이 아
니고 형실이라는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여자의 이름과
성품이 맞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점 또한 같으나 그 내용은 다르다. ‘花咲く春
に(中略)逢ふ事ハ出來ますまい’(꽃 피는 봄을(中略) 맞이할 수는 없을 거에
요)는 結婚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의 불행을 예측하는 말이지만,
‘미화라호는것은 절기가놉흔꽃이니(中略) 이는 진실로미화를 욱되게홈이로다’
는 사람의 형실로 인해서 욱되게 된 매화를 축은히 여기는 말이다.

富永春는 혼자서 독서하고 있을 때에 ‘アノ發明で親切らしい御方が此の土地
に居らるるならバ何もかも打ち明けて御相談をして見たいものだ’(그 현명하고
친절하게 보이는 분이 여기에 계신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을 해 보고 싶
은데, 下p.83)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箱根湯本(하꼬네유모또)에서 한 번 만난 國
野基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다. 한편 飜案作에서는 이 부분은 ‘언의명민호고 친
절흔사람이 이씨잇더면 무삼일이던지 모다 의론이나 호야보고십으나’(p.52)라고
되어 있으며, 특정한 사람을 회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富永春는 箱根湯本에
서 國野基를 만났으나 장매선은 북한산에서 리태순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
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富永春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려져 있다. 藤井權兵衛가 富永春의 父
親에게서 죽기 四~五日 전에 遺言狀을 받았다고 말하자 ‘貴君ハ宇都宮へお出
でになつて居まして御父さんのお隠れになる前の日に御歸りになつたでハ御座い
ませんか’(숙부께서는 우쓰노미야에 가 계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겨
우 여기에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下p.96)라고 그것이 거짓말임을 看破한다. 이
것에 관해서는 장매선도 ‘숙부께서는 고향에가계시고 경성에 계시지아니호셨다
가 겨우 부친하세호시던 전날에야 비로소 오시지아니호얏습나닛가’(p.57)라고
똑같이 권첩사에게 대들어서 기억력이 좋은 면을 보이고 있다.

原作에서는 富永春는 母親이 병을 앓아서 눕기 전에는 女教師⁵⁵⁾였다고 밝혀 놓았으며, 富永春를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렸다. 한편 장매선은 母親이 병이 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琴や三味線ハ大抵で善いから十分に學問をさせるとお言ひだから私しハ御止め申しても見たが中中お聽入れがなく’(거문고나 샤미생⁵⁶⁾은 대중 해도 되는데 학문만은 충분히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려 보기도 했지만 좀처럼 들어 주시지 않고, 上p.6)라는 부분에서 딸의 교육방침을 둘러싸고 富永春의 父親과 母親의 의견이 대립된 사실이 드러난다. 富永春의 父親은 딸에게 학문을 하게 하려고 했으나 母親은 음악을 배우게 하려고 했다. 翻案作에는 이러한 의견 대립이 없다. 장매선의 母親의 교육방침은 아예 알 수 없다. 富永春가 福住樓(후쿠수미로우)에서 거문고를 탔는데 비해 장매선이 북한사에서 글을 읽었다는 점이 다른데, 富永春는 母親의 교육방침을 따라서 거문고를 배워 두었으리라고 생각된다. 翻案作에서 장매선이 거문고를 탄다는 설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장매선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富永春와 장매선은 약혼자를 기다리는 태도도 다르다.

只だお父さんの口約束ばかりで御母さんさへお逢ひなされぬ程ですから何も私しが義理立をして深谷さんを待つにハ及びません (中略) 私しも深谷さんの書きました物を持つて居ますが文章と云ひ學問と云ひ中中並の人とハ思ハれません (上p.9)

(다만 아버지가 말로 약속하셨을 뿐이고 어머니조차 만나지 못하실 정도니까 제가 굳이 의리를 느끼고 후까야씨를 기다릴 필요는 없죠 (中略) 저도 후까야씨가 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도 학문도 여간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일즉히 말삼하시되 심량의 문장과 학문이 타인의 비할바아니오 이피통혼 하얏스니 경선히 타쳐로 언약을움기지 말나하섯슬썸더러 (p.5)

55> 末廣重恭, 「雪中梅」(博文堂, 1886) 上卷 p.6 참조.

56> 고양이가죽을 친 네모진 몸체와 긴 대 부분에 세 현(弦)을 메워서 발목(撥木)으로 타는 일본 고유의 현악기.

우선 富永春는 深谷(후까야)가 쓴 책을 스스로 읽은 데에 비해 장매선은 심량이 쓴 책을 스스로 읽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富永春가 약혼자에 대해서 항상 숨기려고 하는 데에 비해 장매선이 항상 겉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富永春가 다른 사진들 사이에 숨겨 놓은 약혼자의 사진을 國野基가 집었을

國野ハ一枚の寫眞を手に採りオヤ此の裏にハ洋字がある「マイラバー(我が愛す人の義)貴女の御手の様ですなト聞いてお春ハ遽ハてて手を出だし「夫れを御覽なさつてはいけませんヨ (下p.162)

(쿠니노가 한 장의 사진을 손에 들고 ‘아니 이 뒷면에는 영어가 적혀 있네 「마이 러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 하루씨가 쓰신 글자 같군요’라는 말을 하자 하루는 황급히 손으로 제지하면서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약혼자의 사진만이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뒤집어져 있었던 것은 우연히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洋字로 my lover라고 쓴 것도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富永春는 國野基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의 사진만은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태순이 장매선의 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벽상을 우연히바라보니 금식으로 꿈인틀에 사진흔장을 걸었는디 자귀의 얼굴과흡스흔지라 마암에 경아햐야 압호로 갓가히가 본즉 분명자귀의 사진이오 그밧헤 흔귀글을씻스되 금석갓치무거운 언약이여 죽기를흔흔고 저바리지못흔리로다 (p.74~p.75)

장매선은 약혼자의 사진이 남의 눈에 띄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신의 심정도 洋字로 쓰지 않고 韓國語로 썼기 때문에 남이 보면 그 사람이 장매선의 약혼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태순이 사진 쪽으로 다가가도 장매선은 말리지 않는다.

장매선은 문산포에서 권첨사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리태순에게 ‘군자의존성이 심씨가아니시며 일즉이 장씨가에 언약흔일이잇지아니흔싯가’(p.43)라고 과감하게 묻는다. 富永春는 國野基를 직접 만나도 혹시 자신의

약혼자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차이로 인해서 결말 직전 부분의 스토리가 달라진다. 금년을 통해서 리태순에게 넘어간 편지는 장매선이 혹시 리태순이 자신의 약혼자가 아닐까 하는 ‘수괴흐음을 익의지못흐오며’(p.70) 보낸 것이다. 또한 만약에 리태순이 아버지가 정해 준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쓴 편지이기도 하다. 原作에서는 富永春는 國野基가 자신의 약혼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藤井權兵衛에게서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 부대끼는 것이 싫어서 ‘둘이 약혼을 했다는 거짓말을 藤井權兵衛에게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國野基에게 한 것도 아직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기 위함이다. 가짜 약혼을 했기 때문에 原作에서는 藤井權兵衛가 집에 있을 때에 國野基가 富永春의 방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翻案作에서는 장매선과 리태순은 가짜 약혼도 진짜 약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태순은 권첩사 부부가 없는 시간을 틈타서 장매선을 찾아가고 권첩사 부부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황급히 거기를 떠난다. 富永春와 장매선의 태도의 차이는 演說會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演說會 때에 富永春는 國野基를 봐도 그 이름이 약혼자의 이름(深谷梅二郎)과 다르기 때문에 약혼자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매선은 리태순을 보고 이름은 약혼자의 이름(심량)과 달라도 얼굴은 틀림없이 약혼자의 얼굴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三十圓을 보낸 것의 의미가 富永春의 경우와 장매선의 경우에서 다르다. 富永春는 國野基를 政治活動家로서 思慕하고 있었으며, 그 政治活動을 돕기 위해서 三十圓을 보냈다. 한편 장매선이 리태순에게 三十圓을 보낸 것은 그가 약혼자임을 믿고 취한 행동이다.

富永春가 더 독신으로 있으려고 애를 쓰는 原作이 戀愛小說이 될 수 없었던 데에 비해 장매선이 리태순이 자신의 약혼자임을 믿고 찾아다니는 翻案作은 시작 부분부터 戀愛小說이 되어 있다.

장매선이 심량의 사진 밑에 적어 놓은 ‘금석갓치무거운 언약이여 죽기를 흔히고 저바리지못흐리로다’(p.74~p.75)라는 말은 母親에게 말한 ‘이삼년이 지나도록 심량의소식을 모르면 그씨는 숙부와외론흙이 도흘가흐나이다’(p.5)라는 말과 모순된다. 그리고 약혼자의 사진이 ‘금식으로 썸인틀에’ 들어 있는 것도 ‘심량의 사진을 향상품에 품고’(p.42)라는 敘述과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은 具然學이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에 실패한 부분으로서 지적된다.

富永春도 장매선도 약혼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 富永春는 深谷梅二郎(후까야

우메지로우)의 사진이 명료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데에 비해 장매선은 ‘그사진이 십삼세썬에 박인것’(p.3)이며 오래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富永春와 장매선은 政治演說을 들으러 가는 이유도 다르다. 富永春는 國野基에게 그리고 장매선은 리태순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此世の中で男子を助け歐美諸國と肩を比べる様にするにハ女にても少しハ政事上のことを知らねバ成らぬと思ひまして一兩度井生村の演說會へも傍聽に參りました (上p.131)

(이 세상에서 男子들을 돕고 歐美諸國과 맞겨를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女子도 조금은 政治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두 번 井生村(이 부무라)의 演說會도 傍聽하러 갔습니다.)

독립관연설장에까지 가서두루살히옵다가 텃헝으로 군자의 연설호심을 보왔스오나 성씨가 리씨라호오니 바라던마암이 짜에찌러져 창연히 집으로도 라왔습더니 (p.76)

富永春가 政治를 알기 위해 演說會에 간 데에 비해 장매선은 약혼자를 찾는 목적으로 演說會에 갔다.

富永春와 장매선은 실제로 結婚하게 되었을 때에 취한 태도가 정반대이다. 富永春는 國野基가 제시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들은 뒤에 ‘私も貴君へ二つの御相談が御坐います’(저도 당신에게 상담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下 p.179)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國野基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은 結婚하는 당사자끼리 서로 상대방의 意思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富永春가 藤井權兵衛 앞에서 한 다음의 말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西洋でハ氣の合ふた男女が夫婦の約束を定め夫れから表向に兩親の許しを得ると聞て居ります御恩を受けました叔父さんの御辭を返してハ濟みませんが亭主を持つ事丈けハどうか私の心に任せて下さりませ (下p.91)

(서양에서는 마음이 맞는 남녀끼리 우선 부부가 될 약속을 하고 그 후에 형식적으로만 양친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숙부의 말에 거역해서 죄송합니다만 남편을 선택하는 것만은 제 마음에 맡겨 주십시오.)

부부의 약속은 서양식으로 結婚할 두 사람만으로 할 것이며 結婚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을 실친한 富永春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다.

한편 장매선도 권침사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서양서는 마암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부의언약을 덩후 후 외양으로만 그 부모에게 의론한 다호오니 은덕을 밝든숙부의 말삼을 거역호기는 죄송호으나 다만 결혼일스는 소녀의 마암티로 호게바려두심을 바라노이다 (p.55)

그러나 翻案作에는 리태순과 장매선이 結婚生活에 대해서 서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意思를 확인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매선은 어떤 마음으로 실제로 리태순과 結婚할 것을 결심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 대답은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박명훈 첩의 엄친지세시에 공자의 사진을주시며 일으키되 이노곳 너의 백년언약을 덩후바심랑이라 나죽은후라도 부더신을직히여나의 부탁을 저바리지 말나 호심이잇습기로 령덩후신세로 비상히곤난을 격스오며 군자의 종적을 탐문코자’(p.75) 해 왔는데 이제는 심랑을 찾았기 때문에 父親의 명령을 따라서 그와 結婚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장매선의 마음 속에 ‘결혼일스는 소녀의 마암티로’(p.55) 하려는 생각과 父親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義務感의 對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小説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고 주요한 특성의 하나는 완고/개화의 兩極化 現象 내지는 對立의 原理⁵⁷⁾ 라는 설명이 여기에도 꼭 들어맞는다. 장매선은 結婚은 하는 데에 있어서 義務感만 있었고 애정은 없었느냐는 점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선은 兩親의 遺訓이라는 點에 義務的인 의리를 느끼고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隨伴되는 것이 애정이 차지하는 分量으로 된다⁵⁸⁾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것 같다.

人物 形象化의 차이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國野基와 富永春의 관계’와 ‘리태순과 장매선의 관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國野基가 富永春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背景과 리태순이 장매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背景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國野基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놀러 간 箱根湯本(하코네유모토)에서 富永春

57> 李在鎭, 「韓國現代小説史」(弘盛社, 1979), p.61

58> 全光鏞, 앞의 논문, p.260

를 만나서 그녀가 바로 ‘가지 위에 아무리 눈이 쌓여도 계속 버티고 서는 소나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激勵文을 감옥에 보내 준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政治改良의 뜻을 굳게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以後 그녀를 恩人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편 리태순은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놀러 간 북한산에서 장매선이 詩⁵⁹⁾를 읊조리는 목소리를 떨어진 곳에서 들었을 뿐으로 對面하지는 못했다. 그 詩로 인하여 리태순은 장매선에게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詩 중의 ‘사름은갓고 성이 다름이여’(p.37)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일은 자세히 그규슈의 리력을 탐지호리라’ (p.37)고 결심한다.

다음에 실제로 結婚하기를 定하는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國野基와 富永春는 結婚에 대한 조건을 서로에게 두 가지씩 제시한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結婚하기를 定한다.

한편 리태순과 장매선은 ‘이논곳 너의 백년언약을 덩흔바심랑이라 나죽은후라도 부더신을 직히여 나의부탁을 저바리지 말나’(p.75)는 장매선의 父親의 遺言을 지키기 위해서 結婚한다. 리태순도 장매선도 結婚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

富永春에게 있어서 國野基는 ‘政治活動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對象’인 데에 비해 장매선에게 있어서 리태순은 ‘父親이 定해 준 結婚의 對象’이 되어 있다.

富永春는 國野基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 비해 장매선은 심량을 찾는 목적으로 演說會場에 가기도 하고 길에서 심량을 닮은 사람을 보고 자신이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積極的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積極的인 女性像을 그리는 것은 開化期 小說에 있어서 하나의 유행이었는데 翻案作 <雪中梅>도 그 유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朝鮮末期까지의 朝鮮婦人은 다음과 같았다.

讀書나 工夫와는 全然 緣이 없고 萬一 女子의 몸으로서 이러한 方面에 맘을 둔다면 그 女子는 외람스럽고 女子답지 않다 하여 非難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며 탄 男子와 面對하는 것은 一種의 犯罪行爲로서 看過되며 外出은 午後八時부터 十時限까지 그것도 장옷을 입거나 그렇지 않으면 鑑輿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되었다.⁶⁰⁾

59> 일신의 처량함이여 하늘높고 싸히 두터움을 모르도다 사름은갓고 성이 다름이여
백년을 의탁홀곳이 아득호도다 (p.37)

60> 崔華星, ‘女性解放運動史’, 「朝鮮女性讀本」(白羽社, 1949), p.35~p.36

여기서 여성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讀書나 工夫를 하는 것과 男子와 面對하는 것과 自由롭게 外出하는 것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장매선은 <雪中梅>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장매선이 主人公이 되어 있음으로써 더욱 더 두드러지다.

原作이 政治思想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데에 비해 翻案作은 新女性으로서의 장매선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즉 작품이 제시하는 내용이 翻案過程을 통해서 思想으로부터 인간성으로 옮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새 시대의 정신을 고취시켜 나아갈 것’⁶¹⁾을 요구한 開化期의 小說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翻案作 <雪中梅>의 創作目的은 장매선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積極的인 女性像을 그리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의 틀로서 日本의 政治小說을 이용한 점은 奇拔하다. 그러나 韓國 開化期에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의 장르적인 특성이나 규범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이야기의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지식과 경륜을 표현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⁶²⁾ 翻案作 <雪中梅>는 政治小說의 틀을 이용해서 戀愛小說을 썼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시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사문학 양식의 분화 현상’⁶³⁾의 하나의 예가 된다.

(B) 副次的人物

富永正左衛門(토미나가 쇼우자에몽)은 장매선의 父親에 해당된다.

우선 딸에게 대한 교육방침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富永春의 父親은 ‘當世の女ハ昔し風でハ行かぬ琴や三味線ハ大抵で善いから十分に學問をさせる’(지금의 여성들은 옛날과 같이 살 수는 없어. 거문고나 샤미쟁은 대충 해도 되는데 학문만은 충분히 시켜야 된다, 上p.6)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악기 연주법을 배우는 것 대신에 학문을 하라는 이 말은, 여자가 몸에 익히는 교양의 종류를 바꾸라는 의미이며, 가정 안에서는 여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 한편 장매선의 父親은 ‘지금세상의 계집아히는 네전풍기와 잣지아니혼고로 침선방적은 대강이나 아러두면 고만이로되 학문은넉넉히힘쓰지

61> 權寧珉, ‘개화 계몽 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韓國文化> 17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6. 6.), p.81

62> 權寧珉, 위의 논문, p.73

63> 權寧珉, 위의 논문, p.73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에서도 분명하다. 富永正左衛門에게는 富永의 집을 이어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急先務였다. 그리고 四~五年 후에 洋行시켜 준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겨우 深谷梅二郎를 養子로 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리고 나서 富永正左衛門은 숨겨 왔던 딸의 結婚 문제를 꺼낸다. 그 말을 들은 深谷梅二郎는 ‘顔も氣象も知らぬ人を押し付けて家内にせよと云ハるるハ迷惑千萬のこと’(얼굴도 성격도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강요받는 것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일, 下p.167)라고 생각해서 洋行의 꿈도 養子가 된다는 약속도 모두 집어 치우고 函館(하꼬다테)로 가 버린다. 養子를 찾는 일은 春(하루)의 結婚 문제를 꺼낸 것 때문에 水泡로 돌아가고 富永正左衛門은 다시 深谷梅二郎를 만나는 일 없이 죽어 버린다.

한편 장매선의 父親이 경성에서 심랑을 만났을 때는 어떠했는가.

심랑이 처음으로 장매선의 父親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령존이 소싱의 용우흠을 살피지못하시고 덩혼흠을 말삼하신일이 과연 잇’(p.76)다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는다. 즉 장매선의 父親은 심랑에게는 養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洋行을 시켜 준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딸과 結婚해 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로 原作에는 富永正左衛門이 쓴 진짜 遺言狀이 나타나는 데에 비해 飜案作에는 장매선의 父親이 쓴 진짜 遺言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藤井權兵衛가 위조한 遺言狀은 富永正左衛門(토미나가 쇼우자에몽)이 藤井權兵衛에게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遺言狀은 富永正左衛門이 深谷梅二郎(후까야 우메지로우)에게 쓴 것이다. 그 遺言狀의 내용을 요약하면 ‘政治活動을 할 資金으로서 땅에 묻어 놓은 萬엔을 쓰라’는 것과 ‘富永春는 深谷梅二郎가 아내로서 맞아들여도 되고 다른 곳에서 養子를 맞이하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飜案作에서는 결말에서 리태순과 권침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遺言狀이 나타날 여지가 없었다.

富永春의 母親과 장매선의 母親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富永春는 말을 하기 시작한 母親에게 ‘サア横になり蒲團を掛けませう’(자 누우십시오, 이불을 덮어드릴게요, 上p.4)라고 말한다. 이 말에서 그 때까지 富永春의 母親이 잠자리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飜案作에는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장매선의 母親은 처음부터 누워 있었다는 것이 된다. 딸에게 2~3년 기다리라는 말을 할 때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富永春의 母親은 ‘何卒二三年ハ外から養子を取らずに居てお呉れ’(앞으로 二~三년은 양자를 맞아들이지 말아라, 上p.11)라고 명령

을 해서 밖에서 養子를 맞아들이는 것을 금하는 데에 비해 장매선의 母親은 ‘결단코 이삼년을 기다리면 심랑의거취를 알것이니 안심호야지니여라’(p.5)라고 근거 없는 말로 위로하고 있다.

須田蠅之助(수다 하에노수께)는 전성조에 해당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다. 須田(수다)는 3시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4시 30분에 생각이 나서 國野基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90분 늦은 셈인데, 전성조는 3시 반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4시가 지나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약 30분 늦었을 뿐이다.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須田는 ‘天保時代の人間’(템포우時代に 태어난 사람, 上p.64)이라고 말하는 데에 비해 전성조는 ‘사십이후사름들’(p.17)이라고 말한다. 天保時代는 1830년부터 1844년까지이므로 이 기간의 태어난 사람은 原作의 스토리 중의 시대가 1885년이므로 적어도 만 41세는 되어 있다. 翻案作에서는 그런 계산을 한 뒤에 의역을 한 것이다. 須田와 전성조의 성격묘사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政治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政治는 여론으로 인하여 평온하게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것도 原作과 翻案作에서 차이가 없다.

리태순이 송군서에게 ‘이동안전성조도 평안하며 언의곳에 머므나뇨’(p.66)라고 묻자 송군서는 전성조는 리태순을 ‘모함흔죄로 반좌를을당호야 지금까지 감옥서에잇’(p.66)다고 대답한다. 이것으로 리태순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전성조가 僞證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翻案作에만 있고 原作에는 없다.

武田猛(타께다 타께시)는 문전철에 해당된다.

문전철은 술을 마시지 말자고 말리는 리태순에게 ‘술 잇는강산에 걸사가만타는넛말도 모로나’(p.45)라고 말한다. 문전철이 걸사인 데에 비해 武田猛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武田猛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酒樓に登つた處が隣り坐敷に郡役所の奴等が藝者を上げて騒いで居るから僕ハ不平でたまらず障子越に罵詈をしてやると向ふからも惡口を言ふから友達の止めるのを突き除けて其の坐敷へ飛び込み其邊に居る奴に拳固を喰ハセ皿鉢を投げ付けて追散し其の夜ハ大醉で寢て仕舞た (下p.31)

(주점에 갔더니 옆방에 郡廳 사람들이 와 있었고 기생을 불러들여서 떠들고 있었거든. 나는 불쾌함을 참지 못해서 장지문 너머로 악다구니를 퍼부었는데, 저쪽에서도 나에게 욕설을 퍼부어 왔어.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제지하는 것을 모두 뿌리치고 옆방에 뛰어 들어가서 저만치 있었던 애들을 쇠주먹으로 후려갈기고 온갖 접시나 사발 같은 것을 힘껏 내던지고 모두 쫓아냈어. 그리고 나는 그 밤은 엄청나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잤어.)

武田も大声上げ「斷りをするに聽かぬと云ふことがあるものか打つなら打つて見よト臂を捲つて飛び掛らんとす (下p.35)

(타게다도 언성을 높여서 「사과하고 있는데 안 들어 주는 법이 있냐? 때릴라면 때려 봐라 라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덤벼들려고 한다)

문전철이 남을 때리거나 시비를 거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술을 무척 좋아한다는 점은 武田猛와 문전철 모두에게 공통되어 있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다. 문전철은 ‘술 잇는강산에 결사가만타는넛말도 모로나’ (p.45)라고 말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飜案作에는 실제로 술을 따라서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전철이 어느 정도 술을 좋아하고 술에 강한지를 알 수 없다. 술상이 차려지는 장면은 ‘쥬인이 쥬안을갓초와나오거늘’ (p.45)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原作에서는 술상이 차려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下女ハ大いなる塗り盆の上に一瓶の酒と一皿の鱈の塩焼を載せ杯洗に二ツの猪口を浮べて待ち來り二人の前に置き 下女「お待ち遠さま一つ御酌を致しませう 此「手酌の方がいい置て往て呉れい (下p.32)

(下女는 옷칠을 해 놓은 큰 쟁반 위에 술 한 병과 전갱이의 소금구이가 얹힌 접시를 얹어서 그리고 술잔을 씻는 그릇에 술잔 두 개를 띄워서 가져와서 그것들을 두 사람 앞에 늘어놓고 下女「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술을 따라드리겠습니다. 武田「스스로 따르는 게 나아. 여기에 놓고 그냥 가.)

술안주로서 전갱이의 소금구이를 시켰다는 것, 下女는 술잔을 물에 띄워서 가져왔다는 것, 下女가 술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自酌을 했다는 것 등 묘사가 아주 자세하다. 그리고 武田猛가 술을 마시는 모습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此様小い猪口でい飲んだ様にないと云ひながら側らにある「コップ」を取つて満満と酒を注ぎ一息に飲み于し舌を鳴らすに下女ハ驚いて武田の顔を眺め (下p.33)

(이렇게 작은 술잔으로 마셔도 마셨다는 실감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컵」을 들고 찰랑찰랑 술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켜고 혀를 찼다. 下女는 놀라서 타게다의 얼굴을 말끄러미 보고)

「コップ」に六七杯を傾け(「컵」으로 옛일곱 잔 술을 들이켜고, 下p.34)

武田猛는 술잔에는 아예 술을 따르지 않고, 컵에 따라서 마셨다. 게다가六七杯나 마셨다. 또한 武田猛는 國野基의 친구가 쓴 演說原稿를 소리 내서 읽다가 숨이 가빠졌을 때에 田村(타무라)와 다음과 같은 對話를 한다.

田「湯を上げませうかな 此「此の「コップ」に酒をついで下さい(下p.49)
(타무리「뜨거운 물을 드릴까요? 타께디「이「컵」에 술을 따라 주십시오)

숨을 돌리기 위해서 마시는 것인데, 뜨거운 물을 거부하고 컵에 술을 부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은 이 章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의 對話로 인하여 일관성을 획득한다.

武「女のことハどうでも善いが此樓の奴ハ銚子の代りを持って來ぬから不平でならぬオイ姉さん酒だ酒だ 田「モウ頂戴が出来ません 武「私も大醉をしました 武「酒に掛つてハ誰も僕に敵對の出来る人ハいない様だ(下p.62)
(타께디「여자 얘기는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이 집 아가씨는 술병을 더 안 가져오니까 불쾌하네, 어이 아가씨 술! 술! 타무리「저는 이제 못 마셔요 시마디「저도 대취했습니다 타께디「술로는 아무도 나를 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보다)

武田猛가 술을 마시는 양이 남달리 많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게이트’(게에 옛, 下p.34)라고 트림도 서슴없이 하는 시끄러운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데에 비해, 문전철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문전철은 武田猛가 가지고 있었던 개성이 모두 없어짐으로써 아무런 특징도 없는 인물이 되었다.

田村는 武田猛를 ‘有志家でも虚飾の多い世の中に武田君の様な心口一致で淡泊の人ハ珍らしい御座います(유지자 중에도 허식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지금 세상에 타께다君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담백한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下p.66)’라고 칭찬한다. 翻案作에서 남덕중이 문전철을 ‘유지하자는 사람이라 자칭하는 자가 모다 의식만일삼는세상에 문전철갓치 마암과 말이 혼결갓흔사람은 별로업다(p.48)’라고 칭찬하는 부분은 原作과 일치한다.

河岸萍水(카와기시 효우수이)는 하상천에 해당된다.

‘三十内外にて鼻高く眼大きく面色雪の如く堂堂たる偉丈夫にて鼻下に少しばかりの髭を生やし物を思慮する毎に眉間に川字の皺を寄する癖あり是れ別人ならず即ち此の家の主人河岸萍水にて鼠色「フラネル」の浴衣に水色縮緬の「へこ」帯を結め白き鹿皮の上に黒革にて製したる團形の坐蒲團を敷きて之に坐し’(나이는 서른 살 안팎이며, 코가 높고 눈이 크고 얼굴이 눈 같이 하얀 몇몇한 남자이며, 코 밑에 약간 수염을 기르고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양미간에 내 ‘천’자의 주름이 잡히는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 집의 주인 카와기시 효우수이다. 「플란넬」로 만든 회색의 홑옷을 입고, 견직물로 된 하늘색 띠를 띠고, 하얀 사슴가죽 위에 검은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아서, 下p.104)라는 것이 河岸萍水の 외모에 대한 설명이다. 하상천의 설명은 이것에서 ‘鼻下に少しばかりの髭を生やし’(코 밑에 약간 수염을 기르고)가 빠지고 ‘덩자관을쓰고’(p.60)와 ‘안석을의지하야’(p.60)가 새로 加해졌다.

河岸는 權謀術數에 능한 사람으로서 그려져 있다. 그가 富永春를 아내로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으로 서양 풍속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교양을 갖추지 않은 여성들은 상등사회에서 배척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밝은 여성을 아내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법률에는 부부간의 재산 소유를 확실하게 나누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여성과 結婚하면 그 유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등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명예와 富永春가 물려받은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河岸는 富永春와의 結婚이 성취되어도 藤井權兵衛(후지이 고펀에)에게 千엔을 낼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로서 河岸는 천엔을 낸다는 것이 말로만 한 약속이며 문서가 남겨 있지 않다는 점과 藤井(후지이)는 遺言狀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계속 숨겨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藤井는 富永春의 재산을 抵當으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탄로 나면 다른 사람에게서 一時的으로 맡고 있는 돈을 사사롭게 쓴 사실까지 함께 들킬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해서 河岸에게로 가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다. 그때 河岸가 제안한 것이 富永春와 結婚하게 해 주면 千엔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에 자신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河岸를 權謀家라고 부를 수 있는데, 河岸는 이것을 꼭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궁리를 한다. 첫째는 藤井에게 가짜 遺言狀을 만들게 해서 富永春를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富永春가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어서 國野基를 속이는 것이고, 셋째는 술집에서 國野基와 梅吉(우메키치)라는 기생을 만나게 해서 둘이 서로 정을 통했다고 富永春를 속이는 것이고, 넷째는 만약에 富永春와의 結婚이 성취되어도 藤井에게는 千엔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하상천의 계약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松田肇(마쓰다 하지메)는 송군서에 해당된다.

‘木綿の浴衣を着して小倉帯を結め丸顔にて矮小なる男なるが名を松田肇と呼び四五年前河岸の内に食客と爲り昨年あたりより自ら代言に従事し常に河岸の手先となりて奔走することと知られたり’(무명 훔옷을 입고 무명 띠를 띠고 얼굴이 둥글고 키가 작은 남자는 이름을 마쓰다 하지메라고 한다. 四~五年 전에 카와기시의 집의 식객이 되어서 작년쯤부터는 자원해서 카와기시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항상 카와기시의 앞잡이가 되어서 분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下p.105)라는 것이 松田肇의 설명이다. 송군서의 설명도 이와 같으나 ‘죽립을 씻는디’(p.60)라는 말이 새로 加해졌다. 藤井權兵衛의 집의 下女는 그를 ‘松田のお秋さまのお兄さん’(마쓰다 아끼씨의 오라버님, 下p.100)이라고 부른다. 이것으로 松田肇의 여동생의 이름이 秋(아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翻案作에는 송군서의 여동생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松田는 河岸(카와기시)의 陰謀를 실행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松田는 술자리에서 竹村(타케무라)라는 친구와 짜서 國野基가 富永春를 싫어하도록 만들고 또한 梅吉(우메키치)와 정을 통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한편 翻案作에서는 송군서가 임주사와 짜서 리태순에게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松田와 송군서가 하는 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兩君ハ酒席でも政事上の話しをするから野暮でならぬ玉助チツト御酌をせんかダガ國野君ハ此ん様な老婆でハ飲めぬと云ふだらふ (下p.120)

(너희들 두 명은 술자리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멋이 없어. 타마수께, 이 애들에게 술 좀 따라 줘. 그런데 쿠니노君은 이렇게 늙은 여자가 따르는 술은 못마시겠다고 그럴 거야.)

절어가면 중 리약이히고 촌어가면 속인 리약이한다고 오날밤 이 좌석에서는 술이나먹고 옥도나더리고 놀아봅시다 (p.65)